초등상담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2008, Vol. 7, No. 2, 159-168

아동의 분노 체험분석*

박 향 숙† 박 성 희
용화초등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아동의 분노체험 속에 포함된 공통요인과 분노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을 찾아봄으로써 아동분노가 갖는 특성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체험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8명이 체험연구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고, 6회기에 걸친 연구였다. 공동연구자들은 체험분석 방법에 대해 배웠고, 자신의 분노체험 내용을 분석지에 기록하였으며, 모두 34개의 체험분석지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분노체험, 어이없음을 동시에 느꼈으며 이 느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분노상황들 속에서 아동들이 체험하는 공통요인에는 기분관련 요인, 욕구관련 요인, 신체감각 관련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욕구관련 요인들은 기분, 신체감각 관련 요인들보다 더 강하게 지각하였다. 둘째, 아동들은 분노의 외적 표출 가능성에 따라 분노의 공격적 표출과 내적억제의 방법으로 분노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강한 분노표출 충동 때에는 인지적 판단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폭발시키기도 하였다. 셋째, 아동이 분노를 느끼고 처리하는 심리적 과정은 상황인식 단계, 일차적 인지평가 단계, 분노 유발 단계, 이차적 인지평가 단계 또는 강한 분노표출 충동을 느끼는 단계, 분노처리 단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주요어: 아동의 분노, 체험분석, 심리적 과정

---

* 이 논문은 2008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요약본임. 청주교대 논문집에도 게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향숙 / 370-842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Tel: (043) 743-7006 / E-mail: 1673425@hanmail.net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동들 간에 발생되는 다툼을 보거나 듣게 된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화가 나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다. 흔히 분노를 더 크게 느끼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더 자주 표현하는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게 두려움이나 짜증의 대상이 되어 같이 어울리기를 꺼리며, 교사에게도 자주 꾸중을 듣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최근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의 저연령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공격 행동의 원인 중에서 주로 개인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특히 분노를 포함하는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보는 경향이다. Feindler는 비행에 반드시 분노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가 공격행동 및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라고 보며, Larson은 비행 청소년의 적응문제 기저에는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고 본다(이규미, 1998 재인용).

분노 혹은 공격성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국내 상담심리학자들(강신덕, 1995; 강신덕, 1997; 남궁희승, 1997; 안자은, 2006; 남궁희승, 1997; 서미화, 2002; 이미경, 2006)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아동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분노가 갖는 특성이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분노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인을 찾아보고 분노체험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을 찾아봄으로써 아동들의 분노가 갖는 특성이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의 분노체험에는 어떤 공통요인이 존재하는가?

나. 아동의 분노처리에는 어떤 공통요인이 존재하는가?

다. 아동의 분노체험에는 어떤 심리적 과정이 존재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는 연구자 1명과 초등학생 8명(여 5명, 남 3명)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이 논문의 집필자로 체험분석절차를 구성하고 체험분석을 이끌며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다. 공동연구자들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Y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서 이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 중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연구대상자이자 공동연구자로 선정하였다. 처음에는 9명(여 6명, 남 3명)이었으나 여학생 1명이 2회기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으며, 또 다른 여학생 1명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4회기까지만 참여하였다. 공동연구자가 자신의 체험을 수집·분석하여 그 체험 속에 포함된 요인을 발견해내는 체험분석의 특성상 2회기까지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여학생의 체험기록지는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표 1. 체험분석 절차

회기	목표	내 용	세부사항	비고
1	연구의 시작을 위한 만남	1. 모임의 목적과 과정 소개, 연구자의 역할		
		2. 동의서 및 신상카드 작성, 자기 소개	별도의 양식에 작성	
		3. 관련용어 설명	분노란 무엇인가? 체험분석이란 무엇인가?	
		4. 체험분석 방법 배우기	자기관찰 및 체험기술방법	
		5. 분노에 대한 자신의 체험 탐색 및 기술하기	회상의 시간, 기술	
		6. 체험기술에 대한 발표 및 기술방법의 세련화	체험기술 발표 체험기술 방법 수정, 보완	
2	개인의 체험 탐구	1. 분노에 대한 자신의 체험 탐색 및 기술하기	회상의 시간, 기술	분노체험기록지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 면담 실시
3		1. 체험기술에 대한 발표 및 이야기 나누기	각자 기록지에 기록해 온 것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며 비슷한 체험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4		1. 체험에서의 공통요인 찾기	“분노체험에서의 공통요인은 무엇인가?” “분노처리에서의 공통요인은 무엇인가?”	개별 면담 실시
		2. 공통요인 찾기	개인별	
5	공통요인에 대한 토론 및 분석	1. 공통요인에 대한 토론 및 공통요인 목록표 작성(집단합의)	각 집단원들이 자기 발견을 통해 찾아낸 목록을 집단 전체에게 제공, 토론을 통해 공통요소들을 검증・분석	
		2. 체험분석결과에 대한 재검증	실제의 과거 체험을 재체험하면서 최종공통요인 확정	
6	연구자의 종합 해석	1. 결론 맺기	개인별 체험분석 및 집단 체험분석에 대한 연구자의 종합	

서는 공동연구자 8명의 체험기록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마지막 과정까지 참여한 공동연구자는 7명(여 4명, 남 3명)이다.

체험분석 실시 및 결과처리

이 연구에서의 체험분석은 표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6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한 장소로는 수업을 마친 후 본 연구자의 교실과 학교 발명실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작을 위한 첫 만남인 1회기는 본 연구자와 9명의 공동연구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모임의 목적과 과정을 소개하고 자기관찰 및 체험기술 방법 교육이 있었다. 이어서 자기관찰 및 체험기술 방법에 따라 분노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탐색해 보고 기록지에 한 가지 사례를 기술해 보도록 하였는데 공동연구자 대부분이 매우 어려워하였다. 돌아가며 자신의 체험기록을 발표하였으나, 모두 생략된 부분과 역사적 기술이 많았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본보기로 두 사람의 것만 검토하며 함께 수정·보완하였는데, 장난을 치는 등 산만하였다. 이에 개인의 분노체험 탐색 및 체험기술, 개인별 공통요인 찾기 활동에는 집단 활동 보다는 개별적인 면담이 더 효율적일 것이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총4회기로 계획하였던 것을 총6회기로 변경하여 2~4회기를 개인의 체험탐구에 할애하기로 하였다.

2회기에는 9명의 공동연구자가 3~5개씩 총 37개의 체험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아동이 작성해 온 체험 기록지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글로 쓰기 어려워하는 아동은 구술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직접 입력하고 아동이 확인해가며 체험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3회기에는 공동연구자들이 모여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 느낌, 사고, 감각, 행동, 의미 등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며 비슷한 체험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4회기에서 공동연구자들은 자신이 기술한 분노 체험 내용에서 분노유발에서의 공통요인과 분노처리에서의 공통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활동을 하였다. 공통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공동연구자들에게는 본 연구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5회기에는 각 집단원들이 자기 발견을 통해 찾아낸 목록을 집단 전체에게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요소들을 검증·분석하였다. 이때 공동연구자들은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체험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체험의 구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공동연구자들은 실제의 과거 체험을 재체험하면서 최종공통요인을 재검증하였다. 이날 공동연구자들의 동의를 얻어 체험분석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6회기에는 본 연구자가 개인별 체험 분석 및 집단 체험분석에 대하여 종합·해석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은 체험분석에 참여한 소감문을 작성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

아동 분노체험의 공통요인

아동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분노를 체험하고 뒤이어 어이없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들이 말하는 부당함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결과로, 자신의 입장과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이 말하는 어이없음에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음', '수긍할 수 없고 그럴 용의도 없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들이 부당함을 느껴 공통적으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나보다 어린 애들이 까불 때, 공평하지 않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이유 없이 때리거나 욕할 때, 놀림 당할 때, 방해 받을 때(귀찮게 할 때), 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할 때, 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허락 없이 가져가서 사용할 때, 내 말을 무시할 때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동연구자 F를 제외한 6명은 잘난 척 하는 것을 볼 때, 공동연구자 F와 G를 제외한 5명은 간섭 받을 때도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노 상황들 속에서 아동들이 체험하는 공통요인은 부당함, 어이없음 등과 같이 기분을 나타내는 요인과 때리고 싶음, 욕하고 싶음 등과 같은 욕구를 나타내는 요인이 함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 체험 시 느끼는 신체 감각의 공통요인으로는 표정이 굳어지거나 일그러짐, 몸이 더워짐, 몸에 힘이 들어감이 있었으며, 분노의 강도가 높을 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린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자 F와 I를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분노의 강도가 높을 때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

집단 토론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들은 욕구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기분을 나타내는 요인들이나 신체 감각보다 더 먼저 보고하고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것으로 볼 때 아동들은 분노 상황에서 '~한 느낌이 든다' 보다는 '~ 하고 싶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의 대상은 공동연구자들이 보고한 분노 체험 사례로 보면 친구가 19사례로 가장 많았고, 형제가 9사례, 부모님, 교사, 자기보다 어린 하급생이 각각 2사례씩으로 나타났다. 보고한 사례와 관계없이 평소 자신이 누구에게 가장 자주 분노를 느끼느냐는 질문(복수 응답도 허용)에도 친구, 형제, 부모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아동들은 자주 만나 상호작용이 많으며 권위가 동등한 대상일수록 분노를 더 쉽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분노처리의 공통요인

Spielberger(1983)는 분노표현방식을 분노의 내적 억제(anger-in), 분노의 외적표출(anger-out), 그리고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분하고 있다. 분노의 내적 억제는 분노 유발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고, 분노의 외적 표출은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 모욕 등과 같은 외현적 행동을 말하며, 분노조절은 분노를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김광수, 2007).

아동들은 분노 상황에서 때리고 싶음, 욕하고 싶음과 같은 공격적인 욕구를 체험하지만, 분노처리를 할 때 이 욕구들을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지는 못할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경우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타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나를 좋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참는다고 하였다. 이때 참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노 반응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이다.

주변의 시선이나 어른들께 꾸중들을 염려가 없을 경우, 상대가 자신과 비슷하거나 만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격적인 욕구를 외적으로 표출하는데 공동연구자 B를 제외한 6명은 욕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노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는 이런 판단과정을 거칠 사이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기도 한다.

아동 분노체험의 심리적 과정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동의 분노체험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논 의

이 연구는 아동의 분노체험과 분노처리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요인을 찾고, 이들의 분노체험과정에 존재하는 심리적 과정을 발견하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분노를 체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부당함은 자신의 입장과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으로, 다분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분노 원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한 채혜정(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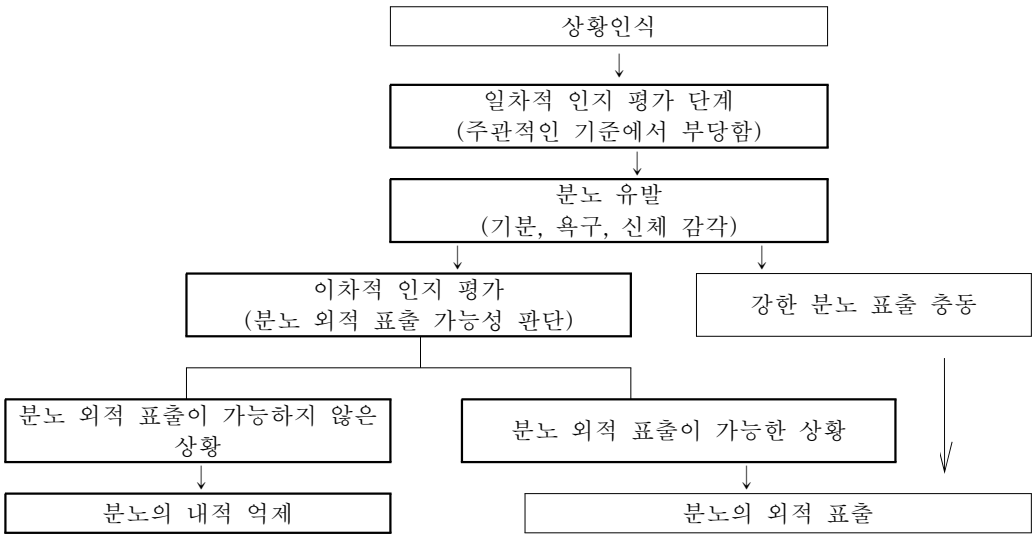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분노체험과정

청소년의 분노 체험 시 인지적 요소로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한 이규미(1999)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동들은 분노 상황에서 부당함과 함께 어이없음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데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의 원인이나 책임을 타인에게로 귀인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이나 다른 관련 요인, 자신이 사건에 기여한 부분 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활동이 아동의 분노유발을 감소시키고 분노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아동들이 분노 상황에서 체험하는 공통요인에는 기분을 나타내는 요인, 욕구를 나타내는 요인, 신체 감각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은 욕구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기분이나 신체 감각을 나타내는 요인들보다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욕구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보면 대부분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분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기 보다는 공격적인 욕구를 더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분노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분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유발되었음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위에 나열한 요인들을 가르쳐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는 신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들의 분노는 주로 대인관계상황에서 유발되고, 자주 만나 상호작용이 많고 권위가 동등한 대상에게 분노를 더 쉽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노체험에서 관계라는 맥락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권혜진, 1995; 이규미, 1999; 채혜정, 2004)을 지지하고 있다.

넷째, 아동들이 분노처리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 분노의 외적 표출 가능성에 대한 인지평가가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지평가 과정을 구조화하여 아동들에게 가르친다면 아동들의 분노 조절과 적절한 분노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아동들의 분노처리방법은 분노를 억제하거나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아동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은 분노처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모인 아동들이 아님에도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했다는 사례는 한 가지도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들이 분노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분노에 대한 인지적인 학습과 아울러 바람직한 분노 표현을 위한 행동적 학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아동들이 분노를 체험하고 처리하는 동안 거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은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 일차적 인지 평가 단계, 분노 유발 단계, 이차적 인지 평가 단계 또는 강한 분노 표출 충동을 느끼는 단계, 분노처리 단계의 5단계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분노체험과정모형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분노를 이해하고 아동의 분노조절을 돕기 위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이 연구에는 아동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현장에서 아동의 분노를 이해하고 적절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활용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체험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 원인, 화가 났을 때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생각, 말, 행동이 자신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분노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의 분노 경험을 듣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자신과 타인의 분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더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또한 다음에도 이런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동연구자 모두 분노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된 점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동들과의 만남이 6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분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유발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아동들에게 자신과 타인이 체험하는 요인들의 종류, 공통점, 차이점을 이해하고 체험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들에게 체험분석 과정을 이해시키고 숙달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공동연구자들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로서 자신의 체험을 정확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4회기로 계획되었던 것을 6회기로 늘려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알맞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집단 회기 시에 B와 D를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관심이 없는 듯 집중하지 않고 끼리끼리 장난치는 행동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피드백(feedback)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 연구자가 통제하고 개개인마다 돌아가며 질문·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했다. 아동들이 체험분석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알맞은 접근법을 모색하고 충분한 회기를 통해 숙달시킨다면 더 심층적이고 정교한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5학년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에게서 같은 현상이 발견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 성별, 가정환경, 지역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공통요인과 심리적 과정이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가정환경, 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한 반복적인 연구와 양적인 확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덕(1995). 청소년의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강신덕(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5(1), 81-143. 청소년대화의 광장.

권혜진(1995).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17(3), 393-410.

김광수(2007).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전략과 실제 : 용서상담교육의 적용. 초등상담연구, 6,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남궁희승(1997).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2004). 상담학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서미화(2002). 아동을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자은(2004). 분노조절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미(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경(2006). 초등학생의 분노유발상황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혜정(2004). 학령기 아동의 분노 경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8(4), 671-703, 한국아동권리학회.

Satir, V. (2004). 사티어 모델. (한국버지니아 사티어연구회 역).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게재 승인: 2008년 9월 30일

An Experiential Analysis of Anger in Children

Hyang-Sook Park
Yonghwa Elementary School

Sung-Hee Park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r significances of anger in children by understanding the common factors observed in children's anger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children's anger, applying the experiential analysis method.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8 elementary students in 5th grade participated in the experiential study as joint researc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during 6 sessions. Joint researchers learned about the experiential analysis method and recorded what they had experienced at the stage of anger on their analysis sheets. 34 experiential analysis sheet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provides a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Children were observed to perceive the factors representing desires more intensely than the factors indicating a mood or senses. Secondly, when they felt urge to express an extreme anger, they were just explored without the cognitive process of judgment. Thirdly, the processes that children feel and treat anger are "the stage of awareness of the situation," "the stage of initial cognitive evaluation," "the stage of induction of anger," "the stage of secondary cognitive evaluation or the stage of intensive drive of anger," and "the stage of anger management".

Keywords: anger in children, experience analysis, psychological process